

# ‘안전점검 허점’ 유흥업소 무법지대로

### 행정·경찰·소방...법령·단속 여건 핑계 방치 사고 이후 단속도 형식...업주들 초법적 행태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형식적 단속과 법령 제도 미비가 유흥업소를 초법적 공간으로 키웠다. 지적이다. 감독기관인 광주시·구청, 소방, 경찰이 법규 미비와 단속 권한 한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며 업주들은 ‘영업권 침해’를 핑계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강력 반발했다.

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클럽은 입주한 건물이 완공된 2003년 이후 불법 증·개축 관련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구는 사고 이후에야 클럽 내 2차레 불법 증·개축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버닝썬 사건’ 계기로 특별점검을 했지만 영업 준비 시점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과 직원만 참여한 현장실사는 A클럽 영업신고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 관리·감독기관인 서구 건축과는 현행법 상 건축물 증·개축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7월30일 A클럽에서 안전 특별조사를 받았지만 내부 구조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엔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안전 시설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유지돼 있지 않을 경우 업주에 보완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도 건축·위생 관련 사항은 행정처분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나설 권한이 없고 영업장 내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보다 풍속 단속 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고 유착 또는 영업권 부당 침해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실효성 떨어지는 단속이 이어지면서 업주들은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사고 이후 광주시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이 꾸려져 지난해 30일 첫 단속에 나섰지만 업소의 영업일자·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걸음했다.

어렵사리 진행된 점검에서 일부 건축과 공무원들은 건축도면 대조 없이 육안으로만 영업장 내부를 살폈다.

단속 사실을 눈치 채 일부 업주는 고의로 영업장 문을 닫아 단속을 회피했다.

일부 업주들은 경찰이 내부 구조물을 촬영하자 “동의를 구했으나, 촬영물을 보여달라”는 등 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경찰은 난감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 직후 지도·감독이 강화되자

일부 개인 세무사와 주류업체는 고객인 유흥주점 업주 등에 행정청 안팎 분위기를 전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대집행과 관계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하연 광주경찰청장도 전날 “클럽

사고를 계기로 유흥가 전체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경찰들과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는 추측성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은홍 기자



토마토축제에 즐거운 아이들 1일 오후 강원 화천군 새내면 사창리 일원에서 열린 화천 토마토축제에서 관광객들이 황금민지를 찾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순천 K자동차 대리점 대표 목사2명에게 피소 당해

### 에배 방해·공갈 협박 등 일삼아

순천시에서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 모 대표가 교인과 목사 등을 공갈 협박하고 잦은 고소로 순천 S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70대 장애인을 협박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와 권사 등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목사 2명이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순천경찰에 협박죄로 김 대표를 고소한 김 모 목사는 “순천 모 교회에서 김 대표와 불온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했으며, 특히 김 대표가 나이든 장모와 권사, 집사 그리고 목사들에게 까지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김 목사는 “지난 6월 25일 오전 9시 51분부터 54분까지 3회에 걸쳐 휴대전 카톡으로 허위사실과 협박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전송하고 이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 처럼 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광양 소재 K 교회 최모 목사도 김 대표를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다. 또 조례동 아파트 경비원으로 있는 허모 씨도 김 대표에게 공갈을 당해 협박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허씨는 “김 대표가 근무지를 찾아와 내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협조를 안하면 노화에 고발해 아파트 경비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체장애 3급인 김 모 권사(여·75)에게 “욕감하고 자빠졌네. 사기전 x”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말해서 순기락에도 압류를 시키겠다”는 등 할머니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권사(여·86)를 두 번이나 고소하면서 “노인네들 감옥에 다 보내라” 등 노인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에 거주하는 이모(68·조례동)씨는 “친절과 봉사 생명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사 명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지난번에도 장애인 할머니가 김 대표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달간 피켓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기에 민망하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에 본인을 고소한 김 목사 등은 다른 교회의 목사”며 “다시 말해 우리(S교회)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 불법으로 침입해서 ‘알가알부’ 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고소한 목사들을 또 다시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외국인 노동자 폭언·폭행 경찰 수사

농촌마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 주재 사무소가 ‘자국 노동자가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한국사무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차례 공유된 ‘폭행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우즈베키어를 쓰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대사관과 협의해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엔 전남지역으로 추정되는 한 밭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관리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리인은 ‘작업 도중 장갑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폭언·욕설 한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한국사무소 등과 협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과 영상만으로는 사건 발생시점·장소와 가해·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우즈베키 당국과 협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발생지가 전남으로 확인되면 수사 주체를 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인터넷상에서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무등산 구름다리 난간 붕괴 추락 60대 중태

무등산 국립공원 계곡에 설치된 구름다리에서 60대가 난간 붕괴로 추락, 중태에 빠졌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57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 계곡 목재 구름다리 아래 쪽에 한모(69·여)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난간 일부가 무너지며 3-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난간 일부가 부식돼 있던 점을 토대로 부실 공사 또는 관리 부실 여부도 규명할 방침이다.

## 광화문광장 인근서 70대 분신·위독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종로소방서와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께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공원에서 한 70대 남성이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약 3분 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부상을 입은 이 남성을 확인하고, 오전 8시52분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현재 의식은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분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서는 ‘일본은 무역보복 철회하라’는 메모, 위안부 관련 서적,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분신 현장 주변 CCTV 확인, 가족 등 지인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분신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 허위진단서로 수천만원 챙긴 4명 입건

지인과 공모해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현금을 받아 챙긴 A(45)씨 등 2명을 보험사기 특별방지법(허위보험청구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며 골절상을 당한 것처럼 병원을 방문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9)씨 등 2명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을 공모해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도 일상 생활중 다친 것 처럼 병원을 방문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보험회사에서 받은 현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